



“우리에게는 고난을 마음껏 맞이하고 다시 희망을 소생시키는 역작용이 필요합니다”

키케로는 '역사는 지나간 시간을 입증하는 목격자다. 즉 역사를 통해 현실은 밝아지고, 추억은 생명력을 얻고 일상사의 지침을 제공받으며 태고의 소식들을 전해받는다' 고 했다. 또한 '역사는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 라고 한 역사가도 있고, '역사는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 의 과정이라고 말한 역사가도 있다. 그리고 크로체는 '모든 역사는 현대사일 뿐' 이라고 했다. 어찌되었든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나 민족은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이나 미래를 열어가는데 있어 바른 방향이나 방법을 제대로 찾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기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 오늘날을 잘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일 지도 모르겠다.

우리 도서관계는 어떨까? 요즘과 같이 세대간의 단절이 점점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 도서관 내에서 직원들 간에 세대차이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러한 세대차이는 결국 도서관 운영의 합리성이나 직원들간 연대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세대간 대화의 촉진은 이제 조직의 구성과 운용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문화》는 이번 월간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지난 한 세대 전 우리 도서관계는 어떠했는지를 되짚어보는 지면을 마련했다. 30년 전후의 도서관 사정을 되짚어보는 것은 그 때의 사정과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지침이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데 필요한 정신적 근거를 찾아보고자 한다.

■ 편집자 주, [글 : 이용훈 협회 기획부장, blackmt@hitel.net]

지금부터 30년 전은 1974년이다. 사회적으로는 1972년 10월유신 선포 이후 강력한 권위주의 분위기가 1970년대를 내내 짓누르던 시대였다. 이러한 시대의 한 가운데였던 1974년 우선 우리 도서관협회의 활동을 살펴보면, 『韓國圖書館協會三十年史』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1973년에 이어 도협이 대국제관계 기본사업이 계속 추진되었다. 그리고 오랜기간을 사무국의 大小事を 돌보아 왔던 崔根萬事務局長이 퇴임하고 그 뒤를 이어 朴大權 사무국장이 처음으로 도서관협회의 살림을 도맡게 된 첫 해이기도 하였다.' 최근만 사무국장은 1967년 12월부터 1973년 12월까지 제4대 사무국장으로 재임하였다. 1973년에는 IFLA와의 긴밀한 관계 구축을 노력하기 시작했고, 1974년에도 그러한 노력을 지속했다고 하는 것이다. 박대권 사무국장은 협회가 대외적으로 보다 강력한 인상을 갖는 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피력하였고, 국내 활동은 물론 활발한 국제활동을 통해 미주나 유럽의 여러 선진국에서만 개최할 수 있었던 IFLA총회 등을 우리 협회가 유치하여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는데, 그러한 노력의 결과 이제 2006년에 서울에서 IFLA/WLIC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한다. 그 해 우리 도서관계의 일반적인 분위기는 《도협월보》 1974년 1월호에 실린 이선근 회장의 신년사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선근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도서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후원에 인색합니다. 선의의 환영은 받으나 실질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속에서 도서관 사업에 투신하고 있는 우리들의 고난은 더해가기만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괴롭게 반추하다보면 좌절만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우리에게서 고

난을 마음껏 맞이하고 다시 희망을 소생시키는 역작용이 필요합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진취적가교에는 승화된 도서관인의 자화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제의 경험을 거울삼아 오늘의 체험을 바탕으로한 내일의 설계는 값진 것입니다.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는 새해를 맞아 선명한 좌표는 설정되어야하고 굳건한 의지로 다져갈 수 있는 구상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라고 강조하였다. 당시 권위적인 분위기가 점점 강해지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학교도서관 부문에서는 교육왜곡현상에 따라 1960년대 전성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운동의 침체기로 접어들기 시작했고, 공공도서관 부문에서도 1960년대 이후 민중의 교육기관인 공공도서관을 뿌리내리려는 노력이 계속되었음에도, 실제적으로는 도서관의 황폐성 지적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미약했고, 정책적인 반영 또한 지지부진하였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도서관계는 새로운 전환기를 열어가기 위해 더 이상 고난에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요즘의 상황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최근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크게 증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건립위주의 정책에 따른 인력이나 운영방식, 자원 등의 문제에서는 별다른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민간위탁이나 명칭변경이나, 비정규 인력 문제 등 더 복잡한 문제들이 표출되고 있어 도서관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 30여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아직 도서관의 사회적 지위는 크게 나아지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30여년 전의 상황을 알기 위해 참고할 만한 자료는 많지 않다. 우리 협회의 《도협월보》를 주로 살펴보았는데, 당시 월보에는 선정도서목록이

게재되고 있는 점이 특이하였다. 현재 도서관에서의 수서 업무를 도울 수 있는 선정도서목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30여년 전에는 선정도서목록을 협회의 선정분과위원회에서 작성, 월보에 게재하고 있는 것은 신선한 충격이다. 물론 당시의 출판량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시도가 계속되었다는 점은 크게 본받을 일이 아닐까 한다. 이 점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도서관인들의 부끄러움이고 도전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1974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 도서관학 박사과정인 신설되었다. 과정의 재적인원은 2명으로, 당시 이재철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와 천혜봉 성균관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가 입학수속을 마쳤다고 한다. 또한 계명대학 병설 전문학교(정원은 주야간 각 40명)와 한국사회사업대학(정원 40명)에서도 1974년부터 도서관학과가 신설되었다. 이들 학과는 준사서 전문교육과정으로 개설된 것이다. 이로써 기존의 승의여자전문대학교와 부산여자실업전문대학교와 함께 전문대학 4곳에 학과가 개설되게 되었다.

협회 부산지구협의회는 1월 17일부터 31일까지 14일간 1974년도 도서관 및 정보자료실무자 강습회를 부산여자실업전문대학교 도서관학과에서 개최하였다. 이 때의 참가자격은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도서관 및 정보관련기관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4년 1월에 기억할 만한 일로는 아무래도 공공도서관 설치보조금이 1974년부터 중단된 것이다. 문교부는 각 시·군·구에 1개의 공공도서관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1968년부터 1973년까지

매년 3천여만원의 설치기금을 각 지방에 보조하여 1973년 현재까지 약 2억여원의 보조금으로 60개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 계획에 따르면 이 설치기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면 해당 자치단체도 그에 상응하는 재원을 투자하여 전국의 199개 시·군·구에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974년부터 설치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어 당초의 공공도서관 설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고 《도협월보》가 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다만 이러한 기사를 보면서, 올해 자료구입비의 지방이양이라는 문제가 불거져 이에 대해 우리 도서관계가 재고를 요청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일에 직면한 것과 연계되어 우울함을 더한다.

1973년까지의 역사는 우리 협회의 30년사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으나 1974년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짚어볼 기회가 없었기에,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정리해 보고자 했다. 그러나 아직 충분한 자료나 관계자 인터뷰 등이 부족하여 일차적으로 우리 협회가 발행한 『韓國圖書館協會 三十年史』, 기관지 《도협월보》,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사』(이연옥, 2002)와 『한국 학교도서관 운동사』(김중성, 2000)를 주로 참조하였다. 앞으로 지난 일들에 관련된 자료나 증언을 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 호에는 1974년 2월의 일을 중심으로 지난 역사 찾기를 계속할 예정이다. 도서관인들의 애정어린 질책과 도움을 기대해 본다. 